

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세례 및 입교자:

세례-손하음, 이지민, 최준영, 최지윤. 입교-강병주, 민지음, 민채우, 최민찬

• **성금요기도회:** 4월 7일(금) 21시 온라인(파일 공유) **금주 토요일기도회 조찬 없음.

• **부활주일:** 다음 주일 연합예배, 성찬식

• **나라주일:** 4월 16일 주일

• **말씀일기 교실:** 4월 23일 주일부터 매주일 예배 후, 60분x5회

• **뒤메나라 모임:** 4월 6일(목) 19시 온라인

• **JC캠프:** 4월 10일(월)-13일(목) CVJM Wilnsdorf, Die Gute Nachricht, 박보도 목사

• **남선교회친선체육대회:** 4월 15일(토) Teestube 및 디아코니 운동장

• **연합어린이여름성경학교 1차 준비모임:** 4월 22일(토) 쾰른한빛교회

• **장애인선교단 '유럽밀알' 후원프로젝트에 함께 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생일:** 최재원, 이광열, 한경일, 미노 아론, 다비드 비버, 백승혁, 손교훈

**** 함께 기도합시다 ****

- 1)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드리게 하소서.
- 2)모이기에 힘써, 배움과 교제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
- 3)코로나19를 넘어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가게 하소서.
- 4)공의와 평화의 주여,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 5)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씻어주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마26:36-56 월/마26:57-75 화/마27:1-10 수/마27:11-26
 목/마27:27-44 금/마27:45-56 토/마27:57-66 일/마28:1-20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08독

◆ 예배위원 안내 ◆

	4월 2일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예배기도	석호선	한상철	권순아	허지은
안내위원	예배부			
헌금위원	김종권, 김호정			
애찬위원	밥상 둘	밥상 셋	밥상 넷	밥상 다섯

40-14호

2023년 4월 2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편 98:1)



주일예배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청소년부 14:00 Mutterhauskirche

청년부 성경공부 15시 30분 Teestube

토요일기도회: 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종려주일에 배(Palmsonntag)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마25:14-30 '사랑 장사' ◀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9장 4절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서교독/Wechselwort	교독문129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141장	다 함 께
기도/Gebet		석호선 집사
찬양/Chor	종려나무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마태복음 21:1-11	인 도 자
설교/Predigt	왕이신 예수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139장	다 함 께
세례 및 입교식/Taufe & Konfirmation	집례	설 교 자
봉헌/Kollekte.....	633장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시작한 자이다. 손해 볼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고, 그러므로 더 많은 것을 맡게 된 사람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주인이 맡겨 준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어 두었던 무익한 종은 하필 상대적으로 적은 달란트를 받은 자이다. 이 무익한 종이 자기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24) 이로 이해한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혹시, 자신의 맡은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을 느낀 데서 오지 않았을까? 자신이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은 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사실 한 달란트만 해도 일반 노동자 15년 임금에 해당하는 큰 것인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할 때는 적은 것이 된다. 내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힘든 부분이 이 점인지도 모른다. 교회를 성장시켜 가야 하지만, 무분별한 성장 위주로 달려온 한국교회의 모습을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마냥 ‘이 모습 이대로도 좋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장사해서 이윤 남기듯이 하는 자본주의식(결국 물질만능주의) 성장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 결코 땅 속에 처박으면 안 되고, 결코 나중으로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 달란트, 이 장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 장사’가 아닐까? 이 달란트 이야기 앞 뒤로 배치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결국은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신랑을 사모하여 등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처녀들(1-13).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봄으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된 최후의 오른편 무리들(31-46). 결국, 모두가 사랑 장사에 자신을 드렸던 자들이다. 주여,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키워가게 하소서.